여러분 곁에 늘 가까이 있는 은행
동양저축은행 226-0180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제17999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www.kwangju.co.kr 2008년 3월 3일 (음력 1월 26일) 월요일

수완신도시 피오레
분양문의 062)367-3000

과열 공천 경쟁 탈법 난무

광주·전남, 금품 살포 시비…문자 메시지·전화 지지 호소 등 기승

선관위 55건 적발

4·9 총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금품 살포, 무차별적 문자메시지 발송, 여론조사 가장 전화지지 호소 등 불·탈법 선거운동이 판을 치며 혼탁·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민주당 등의 공천 작업이 막판에 이르면서 음해성 루머가 난무하고, 상호 비방전도 가열되고 있다.

2일 현재 광주시와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적발한 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사례는 55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주의·경고 조치된 건수가 50건으로 가장 많고, 수사 의뢰 4건, 고발 조치 1건 등이다.

영암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유선호(영암·장흥·강진) 의원의 친인척으로부터 10만원권 수표 1장이 든 봉투를 받았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 중이다. 하지만, 유 의원의 친인척은 "돈을 빌려줬을 뿐이며, 함정에 빠졌다"며 신고자를 검찰에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금품 살포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외에 몇몇 선거구에서도 "모 예비후보가 얼마를 뿌렸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나돌고 있다.

목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모 예비후보의 저서 25권을 구입해 자신의 교회 신도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목사를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고발했다.

또, 광주시 서구선관위원회는 모 예비후보를 홍보하는 문자메시지 10만건이 대량 발송된 사실을 확인, 광주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쟁 후보들을 헐뜯는 비방전이나 음해성 루머도 심각하다. 광주 북 갑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A후보는 당초의 지역구를 떠나 광주 서구에 출마한다는 엉뚱한 소문으로, 전남에 출사표를 던진 B 후보는 한나라당에 비공개 공천을 신청했다는 음해성 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

모 후보도 '수도권 차출설'이 흘러나와 속앓이를 하고 있다.

또 '후보 등록 전부터 선거사무실을 두고 선거운동을 해왔다'느니, '지역 내 일부 유력인사들에게 골프 접대까지 했다'는 등 허위 루머로 예비후보들이 몸살을 앓고있는 형편이다.

이와함께 지역구 전략공천 밀약설이 퍼지면서 일부 후보들은 성명을 내고 진상을 밝힐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선거전 과열로 선관위에 허위 신고도 급증하고 있다. "모 후보가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통장이 입당원서를 받고 있다"는 등 그럴싸한 제보들이 이어지고 있으나 막상 확인해보면 대부분 허위 신고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또 허위 정보로 상대 후보 진영을 혼란에 빠뜨리거나 자작극성 역(逆)정보를 흘리는 사례도 있어 선관위 직원들이 확인에 진땀을 흘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최악 황사…흙먼지 오늘 오후까지

광주·전남 경보 발령

2일 광주·전남지역에 올해 첫 황사경보가 내려졌다. 초·중·고교의 개학날인 3일 오전까지 황사경보가 완화 또는 해제되지 않을 경우 일부 학교의 휴업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7면〉

광주지방기상청은 2일 오후 3시 20분을 기해 광주·전남 전역에 황사경보를 발령했다. 광주의 경우 이날 오후 현재 미세먼지(PM-10) 농도가 1천330㎍/㎥까지 치솟았으며, 흑산도도 531㎍/㎥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02년 황사 특보 도입 이후 광주에서 기록된 수치 가운데 지난해 4월 1일의 최고 수치 1343㎍/㎥에 육박하는 것이다. 평소 광주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60㎍/㎥ 가량인 점을 감안하면 20배 이상의 미세먼지가 광주 하늘을 뒤덮은 셈이다.

이 때문에 광주의 가시거리는 500여m에 불과했으며, 대부분의 전남지역도 7㎞ 이하로 나타나는 등 평소(12~15㎞)보다 훨씬 짧아졌다.

이번 황사는 지난달 29일 중국 고비사막에서 발생한 황사가 북서풍의 영향으로 한반도 지역으로 점차 확산됐기 때문에 발생했으며, 3일까지 영향을 미친 뒤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후원회 광고를 접수합니다
광주일보 광고마케팅국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환경 이만의·통일 김하중 내정

청와대, 초대 방통위원장엔 최시중씨

〈이만의씨〉

〈김하중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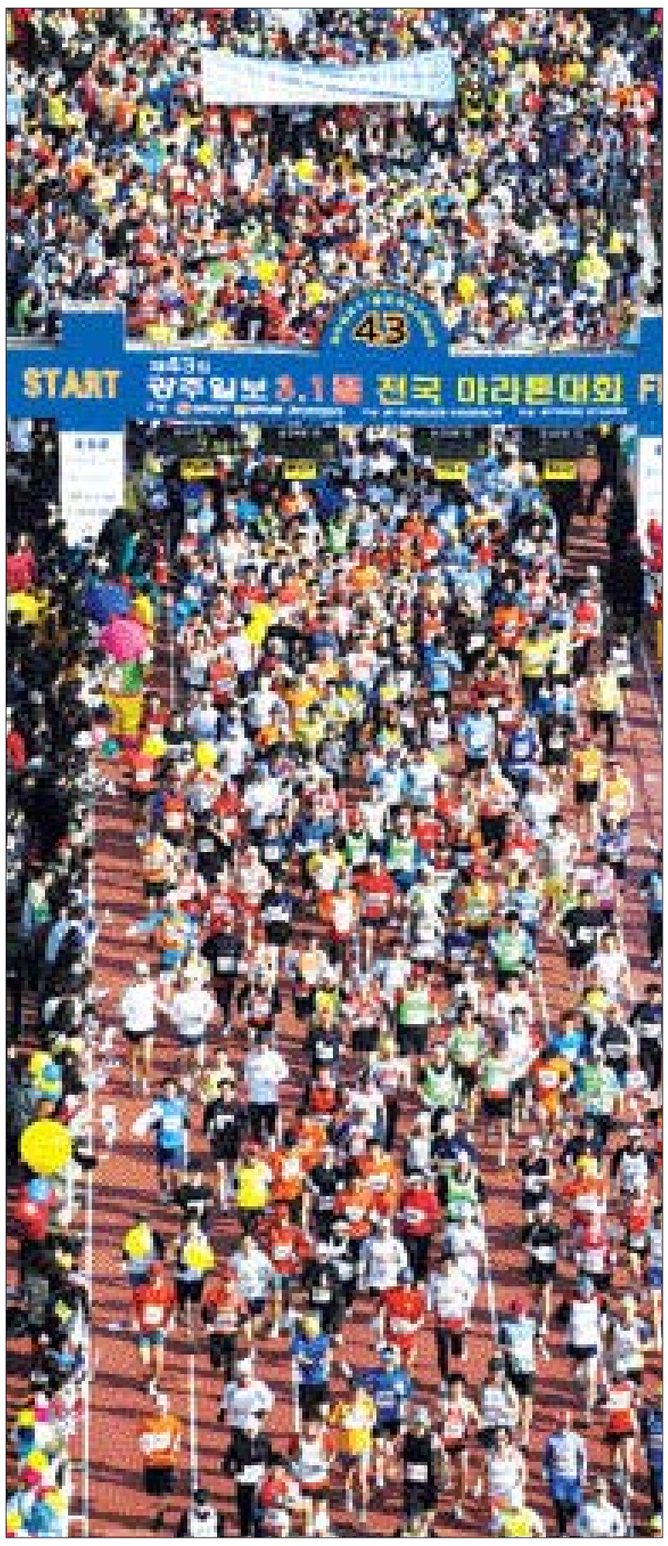
이명박 대통령은 2일 환경부 장관에 담양 출신의 이만의 전 환경부 차관을, 통일부 장관에 김하중 주중대사를 각각 내정했다. 〈프로필 2면〉

초대 방송통신위원장에는 최시중 전 한국갤럽회장이 기용됐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김하중 내정자에 대해 "외교부내 명실상부한 중국 전문가로 조직 장악력과 함께 철저한 자기관리, 북핵외교 및 탈북자문제 등 각종 현안에 대한 대처 능력이 뛰어나다"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또 이 대변인은 이만의 내정자에 대해 "다양한 경력과 업무 능력을 바탕으로 환경부 차관 재직시 환경단체와 원만한 업무 협조 관계를 유지하는 등 현안 조정 능력이 탁월하다"고 평가했다.

이 대변인은 "최시중 내정자는 오랜 언론 생활과 한국갤럽 회장 등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방송·통신 분야의 중립적인 위치에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1만여 건각 3·1정신 드높였다



제43회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가 화창한 날씨속에 지난 1일 광주월드컵경기장~영산강 일원(반환코스)에 이르는 42.195㎞구간에서 열렸다. 형형색색의 유니폼을 입은 참가자들이 광주월드컵경기장을 힘차게 출발하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

심재덕·진애자씨 풀코스 남녀 우승

제43회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가 열린 지난 1일 광주월드컵경기장 일대와 나주 남평에 이르는 영산강 주변은 화창한 날씨와 더불어 새봄의 희망과 마라톤 열기로 가득했다.

특히 이날 광주지역 낮 최고기온이 섭씨 11.5도까지 올라가는 등 날씨도 마라톤을 하기에 가장 알맞아 1만여명의 출전 선수들은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했다.

대회는 김진영 광주일보 사장의 개회 선언, 임우진 광주시 행정부시장의 격려사에 이어 오전 9시 10분 막이 올랐다.

출발을 알리는 힘찬 대포소리에 맞춰 풀코스 선수들이 일제히 환호성과 함께 레이스에 나섰다. 이어 하프, 10㎞, 5㎞ 주자들이 10분 간격으로 출발하며 월드컵경기장 일원은 전국 각지에서 출전한 마라토너들과 가족들이 내뿜는 열기로 후끈 달아 올랐다.

대회 결과, 풀코스 남자부에서 경남 거제 출신의 심재덕(40)씨가 대회 2연패, 여자부에서 대구 출신의 진애자(50)씨가 영광의 우승을 차지했다.

1만여 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레이스 구간별로 시민들의 격려와 응원이 잇따르는 등 전국에서 모여든 마라토너들로 '축제의 한 마당'이 됐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관련기사 8·9·20·22·23면

교통통제 협조 감사드립니다

광주일보사는 지난 1일 일부 지역 교통통제에 따른 불편을 감내하며 질서를 지켜주신 광주시민과 전남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 이번 대회 성공을 위해 수고해주신 광주시·전남도, 광주시체육회·전남도체육회, 광주·전남육상연맹 관계자, 광주·전남경찰청, 광주서부경찰서·남부경찰서·나주경찰서 등 경찰관과 의경,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